

【일반논문】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효주 (제1저자, 서울대학교)

김정근 (교신저자, 강남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비용과 대북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이 그것이다. 셋째, 남한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 일자리 사업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도 발견되었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문제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있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6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NRF-2016S1A5A8927756).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저해요인, 사례연구

I. 서론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¹⁾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집단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현재 총 32,705명에 달한다.²⁾ 북한이탈주민은 긴 시간동안 남한과는 다른 정치적·경제적 이념과 사회제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령화현상과 노후빈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는 남한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 65세 이상 인구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 차지」. 2017년 9월.

2) 통일부 홈페이지 2019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준비와 관련한 내용은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종종 보도되어 왔다. 또한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 삶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2014)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북한이탈주민의 고령인구비율은 2.15%에서 5.78%로 3.63%p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인 2.11%p와 한국 전체 증가율인 3.55%p보다도 높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2004년 23.29%에서 2013년에는 65.69%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무려 70.9%에 이르고 있다. 이는 남한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약 12배가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노후준비여부는 40.5%로 남한 전체 국민 72.9%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³⁾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유입과 빠른 고령화 진행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노인빈곤확대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증폭되고 복지제도의 기반이 취약해질뿐더러 나아가 경제성장 잠재력 감소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대도 야기될 수 있다.⁴⁾ 하지만, 북한이

3)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착한(着韓)통계’ 시리즈 IV 고령화, 2014년 11월.

4) 장용석 외,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권 5호

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초기 정착단계와 젊은 층의 교육과 일자리 확보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는 태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필자들은 본 연구 이전에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정치·경제·문화적으로 남한과는 다른 북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이후 남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어려움과 저해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해 실시한 최초의 질적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일과정과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의 노후 관련 정책 마련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2). pp. 289~322; 이진석, “제5장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통일전략』, 제14권 4호 (2014), pp. 131~157 재구성.

5) 김정근·김효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제38권 2호 (2018), pp. 291~308.

II. 문헌고찰

1.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노후준비란 생애주기가설에 의해 노년기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노년기 또는 은퇴시기 이후의 삶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 노후준비에 대한 영역은 학자마다 다양한데, 예를 들면 Ferrao(1990)는 경제적 준비, 가족관계, 주거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 여가, 건강 등 6개 영역으로, 서전과 박혜인(1992)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준비로, 보건복지부(2012)는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노후준비가 노후의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경제적 노후준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⁸⁾ 이는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공

6)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the demand for wealth and the supply of capital," *Social Research*, vol. 33 (1966), pp. 160~217; 김미령,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 62권 (2013), pp. 257~287.

7) 김정미·엄기욱,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4호 (2014), pp. 197~221;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적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부실화가 대두되면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 혹은 노후를 위한 재무계획의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⁹⁾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에 경도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 결정요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를 포함한 동거가구원 등이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특히, 정경희(2009)는 2004년에 65세 이상

-
- 8) Moore, J. F., and O. S. Mitchell, "Projected Retirement Wealth and Saving Adequacy," in O.S.Mitchell, B. Hanmmnd, and A. Rappaport, ed.,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Pension Research Council.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p. 68~94; Trewin, Janet, and Anthony P. Curatola, "The Inequality of Distributions from Retirement Plans as a Result of Differing Life Expectations," *Benefits Quartley First Quarter* (2002), pp. 38~47; Hodges, Linda,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2004).; Haverman, R., K. Holden, B. Wolfe and Shane Sherlund.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vol. 44, no. 2 (2006), pp. 249~264.
- 9)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3호 (2008), pp. 275~297.
- 10) 박창제, 위의 책; 정경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56권 0호 (2009).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분석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율이 2배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연령은 노후대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후의 생활 계획은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와서야 보다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이다.¹¹⁾ 하지만 연령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홍성희와 박인숙(2006)은 40대 이상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은퇴계획에 따른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식(2013)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대하는데 비해 실제 노후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있다.¹²⁾ 한편, 하춘광(2006)은 연령 간 재정적 노후준비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교육수준은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일찍이 임장순(1990)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1)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2)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4호 (2005), pp. 1~15;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1호 (2009), pp. 205~224.

13)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4호 (2005), pp. 1~15; 김년희·유두련,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2008년 12월 4일);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3호 (2008), pp. 275~297;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1호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 계획을 세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경희 외(2005)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홍성희 외(2007)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노후대비 저축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다섯째, 동거가구원에 대해서 이승신(2013)은 동거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동거가구원 중에서도 특히 자녀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은영(2008)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 이후의 자산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여운경(2005)은 자녀교육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녀교육이 은퇴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년기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을 끝마친 뒤에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⁵⁾ 이는 자녀교육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 pp. 205~224; 이승신, “베이비붐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2호 (2013), pp. 73~95.

14) 황승일, 위의 책; 박미석, 위의 책; 김양이·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통권 19호 (2008), pp. 55~82; 김년희·유두련, 위의 책; 박창제, 위의 책.

15) 홍성희·곽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2006), pp. 193~207; 백은영, “베이비붐의 은퇴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7권 2호 (2011), pp. 357~383.

2) 경제적 요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금융 및 재정적 변수들에는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 주택보유를 포함한 자산, 부채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¹⁶⁾

이지은(2000)과 여윤경 외(2007)는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 부동산 자산 총액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층일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지은(2000)은 또한 노후를 대비한 저축율과 자산율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노후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년희와 유두련(2008)은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

16) 김성희,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신하연,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지은,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명숙,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배문조·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7호 (2004), pp. 89~201; 최혜자·이영분,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2005), pp. 415~435; 홍성희·곽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2006), pp. 193~207; 여윤경, “한국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2005), pp. 21~36; 나지나 외 공저,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붐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2호 (2010), pp. 29~54; 백은영, “베이비붐의 은퇴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7권 2호 (2011), pp. 357~383; 이승신, “베이비붐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2호 (2013), pp. 73~95;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12호 (2013), pp. 738~747.

구에서 주택은 자가 및 전세일수록, 금융소득 및 저축, 실물자산, 은행예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을 보유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박창제(2011)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사적 재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채가 없는 것이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이자 저축과 주식 및 투자신탁을 하는 경우는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택보유가 금융노후준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다. 박창제(2008), 나지나 외(2010), 이승신(2013)은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주택소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백은영과 정순희(2012)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현황과 주택자산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주택 유무에 따라 가계의 재무와 은퇴 관련 특성이 차이가 있었으며, 주택유무, 주택시가, 주택마련 대출 보유, 실물자산 중 주택비중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주택자산이 노년기의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중장년기의 경제상태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이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이주민 또는 난민이(immigrants or refugees)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를 저해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낮은 소득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짧은 직장경력,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부적응,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¹⁷⁾ 또한 이주한 곳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과도한 신뢰, 금융지식의 부족, 그리고 전문적 경

력의 단절, 또는 늦은 나이의 이주 등도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⁸⁾ 앞서 언급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낮은 건강상태도 경제활동을 중단시켜 경제적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¹⁹⁾

3. 북한이탈주민 고령화와 노후준비

북한이탈주민의 노령화 지수는 2004년(23.29%)에서 2013년(65.69%)까지 10년 간 약 42.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인해 젊은층 1명이 부양해야하는 고령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내 세대 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잠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47.6%로 ‘건

17) Kim, J., and Moen, Ph, "Moving into retirement: preparation and transitions in late midlife," in M. Lachman, 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2001); Long, J., "Continuity as a basis for change: Leisure and male retirement," Leisure Studies, vol. 6 (1987), pp. 55~70; Topa, G., Moriano, J. A., and Moreno, A,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immigrants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33, no. 3 (2012), pp. 527~537; Borjas, G., Bronars, S. and Trejo, S., "Assimilation and the earnings of young internal migrants," Contract number J. 9-J-7-0093.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0).

18) Taylor, M., and Geldhauser, H., "Low income older workers," in K. Shultz & G. Adams, ed., Ag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Mahwah, NJ: Erlbaum, 2007), pp. 25~51.

19) Shultz, K., and Wang, M, "The influence of specific physical health conditions on retirement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65 (2007), pp. 149~161.

20)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착한(着韓)통계' 시리즈 IV 고령화, 2014년 11월.

강문제(25.5%), ‘외로움과 소외감’(7.8%)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65세 이상 북한 이탈주민 중 70.9%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²¹⁾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고령층이 될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이들 또한 노인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노후빈곤확대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약화시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²²⁾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들은 나온 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후준비와 관련된 학술 논문은 부족하다. 정은찬(2016)이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준비 측면보다는 초기정착과 생활을 위한 금융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정근·김효주(2018)의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성’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이 유일하다.

21) 남북하나재단, 위의 자료.

22) 이진석, “제5장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통일전략』, 제14권 4호 (2014), pp. 131~157; 장용석 외,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권 5호 (2012), pp. 289~3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그 중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배경, 신념,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실천적·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중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된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면접, 관찰, 문서와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하는 방법이다.²³⁾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가설 검증이나 새로운 이론의 생성 보다는 현상에서의 통찰이나 발견, 혹은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 실시하며

23) 조홍식 외 공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3).

총제적인 서술과 설명을 추구한다.²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후 경험하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그에 대한 저해 경험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접하게 되는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 경험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해당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 16명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의 종합사회복지관(00시 00동)과 하나센터(00구)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이나 정착기간, 학력, 중국체류 경험 유무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이미 고령층(6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외하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만 40-64세)만을 포함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16명을 심층면접자로 섭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24) 고미영,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2009).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적 인적 사항

참여자	성별	연령	탈북년도	입국년도	학력	직업	결혼유무	중국체류
1	여	50대	1998	2005	고등중학교	요양보호사	사별	유
2	여	40대	2008	2016	고등중학교	무직	기혼	유
3	여	40대	2016	2016	고등중학교	무직	기혼	무
4	여	40대	0000	0000	고등중학교	무직	기혼	유
5	여	40대	2004	2007	대학교	상담사	기혼	유
6	여	50대	2010	2013	전문학교	회사원	사별	유
7	여	40대	2010	2018	고등중학교	무직	기혼	유
8	여	40대	2012	2012	고등중학교	복지사	기혼	유
9	여	40대	1997	2003	고등중학교	보험설계사	기혼	유
10	여	50대	2000	2003	고등중학교	바리스타	기혼	유
11	여	40대	1997	2014	고등중학교	사서	기혼	유
12	여	60대	1997	2010	고등중학교	무직	사별	유
13	남	40대	2011	2015	고등중학교	사업가	기혼	유
14	여	40대	1999	2014	고등중학교	사업가	기혼	유
15	여	50대	2006	2006	대학원	강사	기혼	무
16	여	60대	2004	2004	대학원	연구원	기혼	무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별면담과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앞서 참여자 기본 인적사항, 탈북 및 남한 정착 배경, 남한에서의 노후준비, 노후준비 저해경험의 내용이 담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게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면담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대화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야기 전개에 따라서 사전 질문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회당 면담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생생한 진술을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1대의 녹음기와 수기로 빠짐없이 기록했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대해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수차례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숙지하였다. 두 번째, 숙지한 내용에 기초하여 노후준비 저해요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찾아서 명료화하고,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한 후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별로 구분된 개념을 비슷한 내용들로 묶어가며 하위범주(하위카테고리)로 재 진술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범주를 토대로 상위범주(상위카테고리)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분석을 통해 개념, 범주(하위범주), 영역별 주제(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글쓰기 단계에서는 범주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적절한 사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원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기술하였다.

4.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질 검증

본 연구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 승인(P01-201702-22-005)을 거

친 후 연구자가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분석결과를 검증하는 다원화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면담과 초점집단인터뷰 이외에도 각종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문헌과 신문 및 방송기사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하기 전후로, 연구동의서와 질문지, 기록, 분석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인터뷰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질 제고와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진술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총 28개의 개념을 얻었으며, 이들 중 하위범주 15 개, 상위범주 4개를 발견하였다.

<표 2>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요인과 관련되어 나타난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개념 (28개)	하위범주 (15개)	상위범주 (4개)
노후와 노후준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후준비 인식 부재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과 지식 부족
북한에서는 앞날을 크게 생각하지 않음	미래대비 보다 현재 보유 소득 중시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함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남한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함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노후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음	노후준비 지식 부재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	
노후준비 생각은 있으나 방법을 잘 모름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것과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음		
노후준비의 다양한 방법(적금, 예금 등)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을 모름		
하나원 등에서 하는 금융교육이 실제 정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됨	노후준비 교육내용 및 수준, 시기의 비적합성	
노후준비 관련 교육 경험은 있으나 어려워 이해를 못함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비용이 적지 않음	브로커 비용 지출 및 대북송금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
재북 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브로커 비용도 지출함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야 그들이 먹고 삼		
여윳돈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북한 가족에게 송금함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비 및 약값으로 지출	탈북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본인의 노후보다 어린 자녀를 위한 지출이 우선순위가 노후준비는 하지 못함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	
자녀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부분이 지출되어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움		
북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아 구직에 실패함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남한의 환경적 요인
역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직에 실패함		
외국어에 익숙치 않다는 이유로 취직에 실패함		

국가나 시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의 기간이 짧아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려움	짧은 근속기간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요인
북한과 중국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도 생활하면 남는게 없음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150만원 월급 받으면 생활비, 공과금 떼고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저축하기 힘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직 활동 혹은 취직이 꺼려짐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	
막일은 안하겠다, 사무직을 하겠다 등 높은 목표 때문에 구직에 성공하기 힘들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급여가 적은 곳에서 일하기 꺼림		
남한 정착 후 느낀 외로움과 허전함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임	탈북으로 인한 공허함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	

각 범주별로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요인에 관해 분석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과 지식 부족

노후준비 인식과 지식 부족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후준비 인식 부재,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관련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함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후준비 인식 부재

참여자들은 특히 남한 정착 초기에는 노후를 준비해야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에 노후와 노후준비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에는 배급제를 통해 나라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았고, 경제난 이후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착 초기에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잘 와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 후 제3국에서 거주한 경험 없이 곧바로 남한으로 온 경우에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였다.

노후준비나 금융에 관한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게 북한에서는 위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다보니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남한에 오다보니까 노후에 대해 너무 떠드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어도 뭐 그렇게 못 먹고 산다고 노후, 노후 하는지 우리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참여자 5)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해도 노후 이런 게 걱정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노후래도 다 배급을 주고, 집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병원, 학교 우리는 다 무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니나 내나 다 사는 게 같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막 쪽팔리고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특별하게 잘 살아도 안돼요. 다 똑같이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 돈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참여자 10)

사회주의에서는 돈, 돈하면 자본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주의에 너무 몰이 져서 돈을 모르고 살았구나. 90년도 전에는 북한사람들이 받는 돈은 월급하고 타먹는 거니까 돈에 대한 애착,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1)

2) 미래대비 보다 현재 보유 소득 중시

참여자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 현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경험 탓도 있겠지만 탈북 이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경험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장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착 초기에는 4대 보험이 안 되더라도 당장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당장 생활이 바쁘지 미래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보험을 들어요? 빨리 찾지도 못하는 거. (...)정착 생활을 안 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남한 사람들은 계속 안착해서 살아 왔잖아요. (참여자 4)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래를 잘 생각 안해요. 당장 버는 돈도 그래요. 4대 보험을 하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 안되도 당장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직장에서 일하려고 해요. (참여자 16)

3)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자들은 노후를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와 관련 금융상품들은 좋지 못한 것으로 교육 받은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노후준비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걸 하면 안 좋은 걸로 별로 반듯하지 못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사기꾼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참여자 5)

노후준비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던지, 보험이라던지.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일절 가입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3)

4)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

참여자들은 또한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있을 때,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못다 찾은 경험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도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 중에 적은 돈이라도 노후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될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에 은행을 이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해도 넣은 돈을 다 못찾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믿지 못해요. (참여자 5)

은행가면 뭐 펀드, 연금 그런 거 추천해주잖아요? 그 옆에서 막 이야기해도 들으려고도 잘 안해요. 아직 그런 거에 믿음성이 없고, 뭔가 믿음이 있어야 그걸 실천하는데, 마음에서 받아드리질 못하고 믿음성이 없으니까. (참여자 6)

5)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재 및 정보접근의 어려움

참여자들 중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관련 교육을 들어도 관련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또한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노후준비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을 모른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노후준비의 당위성과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것도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해 조금

이라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다가 각종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온지 10년이 더 넘으니까 노후가 좀 불안은 하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10)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아 이게 좋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모르지 뭐. 그리고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서 나올 때부터 '주식 투자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나와요. 몰라가지고 그냥 하지마 그러니까 그저 멀리 하는 거죠. (참여자 4)

6) 노후준비 교육내용 및 수준, 시기의 비적합성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등에서 노후준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후준비 및 금융 관련 교육이 실효성이 낮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를 못했거나, 교육 시기가 너무 일러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에서 노후준비 관련 교육은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냥 금융이다 경제다 해서 사기전화나 보이스피싱 그런 거 조심해야한다 이런 거 배우고. 그런데 나올 때 못 배워서 그런지, 공부를 안했는지 뭘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나요. 그냥 다 이렇게 나와서 닥치면서 배우는 거 같아요. (참여자 7)

제가 그때도 교육 받을 때 금융, 채권 어디다 투자한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은행에 돈 빌리면 이자가 몇 프로 붙는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참여자 11)

하나원의 자본주의 교육이나 금융교육은 효과성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때는 교육내용이 와닿지 않아요. 실지 사회에 나와서 겪어봐야 아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13)

2.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

1) 탈북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브로커비용 지출 및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한 대북송금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남한 정착 후,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브로커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후 가족 특히, 자녀들을 탈북시킬 경우 과도한 브로커비용으로 인해 빚을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식이 끊어진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해 수년간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엄마가 먼저 와서 자식을 부를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와서 엄마를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하죠. 북한에서는 못 먹고 살았는데 밥이라도 먹고 살라 하면서 데려오는 거지. 그리고 데리고 오고 나면 그게 다 빚이거든. 브로커 비용도 타격이 커요. (참여자 5)

북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나왔어요. 그때 아이들을 두고 일단 제가 먼저 나왔는데 어찌다보니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게 됐어요. 그때에는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다보니. 한국 들어와서 아이들 찾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몇 년 동안. (참여자 12)

또한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전원이 탈북하기 힘든 상황에서 먼저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송금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다. 때문에 여윌돈이 생기면 노후를 위한 저축보다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는 참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 참여자는 대북송금을 가장 큰 노후준비 저해요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북한에 두고 온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몸도 아프고 여기서 낳은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 몸 아파도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자. 딸한테 보내면 그래도 딸이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노후를 준비할 돈을 못 모아요. (참여자 2)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게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남한에 정착하고 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알바를 했어요. 내가 주말 내도록 일해서 20만원이라도 더 벌어서 보내면 북한에서 쌀하고 옥수수를 나름 풍족하게 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요. 1년에 몇 백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참여자 15)

2) 탈북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

참여자들은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 잘 먹지 못하고, 탈북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며, 복송을 당한 경우 심한 고문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건강상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 달 소득 중 상당액을 치료비 및 약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 주민들로부터 소개 받은 한의원 치료나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이 넘으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못 먹었지, 남한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아픈데도 계속 일해 해야 먹고사니까. (참여자 12)

북한에서는 살기 바빠서 앓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제 한국 들어오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갑상선, 관절, 염증.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하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참여자 12)

3)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

참여자들 모두 본인의 노후준비보다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 마련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인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 이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1세대는 남한사회에서 2등 국민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만큼이나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해 준 것이 없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자녀의 일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자들은 다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느끼는 거 같아요. 중요한 직책에 있어도 뭐 '우린 어디까지나 2등 국민이고 이제 우린 할 수 없어.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 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감수하고 '우리가 뭐 언제 노후준비 하겠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 성공 시키는걸 그냥 노후 준비로 생각해야지.'해요. (참여자 2)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있으니 돈을 받아도 괜찮은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고 있을 때 좀 보태주고, 결혼할 때, 3500만원 해줬어요. 간병인 일 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자식 도와주는 것을 내 노후라고 아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참여자 1)

3.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남한의 환경적 요인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남한의 환경적 요인에는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 근속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각종 차별로 인해 구직이나 취직에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이라는 점, 억양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취직에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탈주민이라는 조건에서 어디 취업, 취직하면 무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억양이 틀리다, 뭐 북한에서 왔다, 한국에서 교육을 못 받았다 하면서 잘 안 써주려고 해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노후대비를 어떻게 해요. (참여자 9)

2) 짧은 근속기간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국가나 시도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일자리 사업 기간이 짧고 이후 재참여가 어려워 충분한 직업경력을 쌓기 어렵고, 이후 다른 곳에 취직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에서 일자리 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저희를 채용해가지고 취업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딱 10

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되면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하나 이게 뭐 또 시청에다가 지원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적어요. (참여자 10)

연금이나 희망통장 이런 것들도 좋은데 정말 그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취업 기간이 연장이 돼야 가능하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 버리면 그 기간에 소득에 대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끊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했다가 취소했어요. (참여자 5)

3)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싶어도 여윌 돈이 없어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실 이는 남한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와도 겹치는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과 경제 격차가 큰 북한에서 살다가 왔다는 점과 남한사회에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점과 같은 특수한 이유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솔직히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돈이 언제 이렇게 있어 보겠다고. 수급자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나오는 돈 외에는 나오는 돈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당장의 삶이 바쁘니까 노후를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참여자 3)

제일 답답한 게 지금은 여기 와서 일해서 자기 노력으로 대가를 받지만 순 노동을 해서 150(만원)을 벌어도 생활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노후 준비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여유가 없잖아요. 저라고 왜 노후준비를 안하고 싶겠어요. (참여자 6)

4)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경우, 수급 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소득이 높지 않은 5년 동안 의료비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료비용 혜택이 끊기는 게 제일 무서워서 연장이 되더라도 또 5년이 지나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참여자 4)

저는 수급비를 타니까. ‘아, 나는 수급비를 타니까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데 사실 일하고는 싫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순간 생계비가 찢리잖아요. 그래서 일하다 그만두면 그런 게 완전 찢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커요. (참여자 7)

4.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문제는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고향땅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공허함과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노후준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참여자들은 초기 정착 당시, 대체로 일자리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취직을 잘 하지 못하고 이는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노후준비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에 막노동이나 급여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보통 2년까지는 목표가 높은거 같아요. 나는 막일

은 안하겠다. 나도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온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는걸 깨달았어요. (참여자 8)

2) 탈북으로 인한 공허함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탈북으로 인해 공허함과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를 겪었거나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심한 경우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못 살고 남의나라 땅인 중국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못 살고 하니가 남한에 오게 되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참여자 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요인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 북한이탈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담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례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해 4개의 상위범주와 15개 하위범주, 28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경험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북한에서 개인소유로 인

정되는 소득에 대해 큰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또한, 이들은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은행은 국가소유로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 북한이탈주민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시스템 활용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²⁶⁾ 그리고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들과 다른 추가적 지출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브로커 비용과 대북송금으로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신체·정신적 치료와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노후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남한의 환경적 요인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에의 어려움,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직을 꺼림 등의 현상을 겪고 있었다. 넷째, 노후준비를 위한 안정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으며,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각종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금융이해력의 부족’, ‘사회적 차별’, ‘노동시장의 차별’ 등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²⁷⁾ 하

25) 최은석, 『북한의 사회주의 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법제처, 2007).

26) “North Korean Defectors Learn Capitalism the Hard Way,” 『Wall Street Journal』 March 28, 2017.

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라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변화를 급진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연구의 이민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유일의 폐쇄 국가인 북한에 거주했던 이유로 남한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금융제도에 대한 노출 경험이 없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남한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준비방안과는 구별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증진시켜 노후준비 관련 개념과 지식,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금융이해력이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집단에 대해 우선적인 노후준비 금융교육이 요구된다.²⁸⁾ 하지만 현재 하나원 금융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한 직후, 즉 남한생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공되고 있어 현실적

27) Kim, J., and Moen, Ph, "Moving into retirement: preparation and transitions in late midlife," in M. Lachman, 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2001); Taylor, M., and Geldhauser, H, "Low income older workers," in K. Shultz & G. Adams, ed., Ag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Mahwah, NJ: Erlbaum, 2007), pp. 25~51.

28) 김정근·김효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제38권 2호 (2018), pp. 291~308.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남한생활 정착이후 정착시기별, 연령대별로 금융교육 및 노후준비 방법을 지역사회내에서 제공하는 방안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따라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나 관련 지식 이해 수준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개인별, 연령별, 정착시기별 등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지역별 하나센터가 민간금융기관 지역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들과 협력하여 교육 내용 및 재무상담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으면 금융교육 및 경제적 노후준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만이 경험하는 노후자금 마련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을 유인하는 새로운 노후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금융상품은 초기정착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돕는 상품은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은 가입자가 세전 근로소득 30% 이내로 저축을 하면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최소 약정 2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 상품 등 노후금융 상품은 부재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노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규개발하여 일을 하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이 노후에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연금상품이 필요하다. 독일의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과 같이 저임금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거나 일정금액을 매칭지원해 주는 연금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29) 류건식·이상우,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독일 리스

셋째, 중장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이들이 취업과 직장, 일자리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문제해소가 필요하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약 50%는 북한지역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사회내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³⁰⁾, 2015년 북한이탈주민 노동권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0%가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느꼈다고 조사되었다.³¹⁾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인식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이 서로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브릿지프로그램(Bridge program)’ 등을 통해 이민자집단과 선주민과의 소통과 교류 증진 및 상호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 및 직장동료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및 노후금융교육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들만이 직면하고 있는 정서적·신체적 현안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통일사회복지사(가칭)’와 같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탈북과정에서의 고된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

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KIRI Weekly 제161호 (2011), pp. 1~13.

30)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31)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노동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32) 윤여상·윤인진,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그리고 친족들과 떨어져 있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³³⁾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통일사회복지사(가칭)’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전문분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보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정서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과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노후금융준비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16명을 선별하여 진행한 질적 사례연구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이나 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 등을 연구 참여자 선정과 연구결과에 반영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노후준비 저해요인들의 공통점들에 중점을 두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세부적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 경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사회의 자원으로 바라보고,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실천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통일이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

33) 노대명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황나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방자치단체,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추가적 연구와 실천적·정책적 지원 및 개발이 요구된다.

■ 접수: 2019년 4월 26일 / 심사: 2019년 6월 3일 / 게재 확정: 2019년 6월 3일

【참고문헌】

- 고미영.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2009.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노동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_____.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2016.
- 남북하나재단. 『201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3.
- _____.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남북하나재단, 2015.
- 노대명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진단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민간과 공동으로 노후준비지표 개발』.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윤여상·윤인진.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정경희 외 공저.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흥식 외 공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3.
- 최은석. 『북한의 사회주의 재산관리 및 귀금속관리법에 대한 남한의 관련법제와의 비교분석』. 법제처, 2007.
- 황나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Corbin, J., and Stra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2008.
- Halpern, P. *Refugee economic self-sufficiency: An exploratory study of approaches used in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program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SAGE Publications, 2013.
-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ird Edition. Sage Publications, 2003.

- 김년희·유두련.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년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2008년 12월 4일).
- 김미령.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 62권 (2013), pp. 257~287.
- 김성희.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6.
- 김정미·엄기욱.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4호 (2014), pp. 197~221.
-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양이·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통권 19호 (2008), pp. 55~82.
- 김정근·김효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제38권 2호 (2018), pp. 291~308.
- 나지나 외 공저.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붐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2호 (2010), pp. 29~54.
- 류건식·이상우.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독일 리스터 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KIRI Weekly 제161호 (2011), pp. 1~13.
-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4호 (2005), pp. 1~15.
- 박지선.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4.
-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3호 (2008), pp. 275~297.
- _____. “베이비붐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7권 4호 (2011), pp. 327~351.
- 배문조·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7호 (2004), pp. 89~201.
- 백은영. “은퇴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2호 (2008), pp. 27~51.
- _____. “베이비붐의 은퇴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7권

- 2호 (2011), pp. 357~383.
- 백은영·정순희. “베이비붐의 재정현황과 주택자산이 은퇴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15권 1호 (2012), pp. 141~160.
- 서전·박혜인.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통권 18권 (2004), pp. 143~166.
- 송명숙.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신하연.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여윤경. “한국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2005), pp. 21~36.
- 여윤경 외 공저.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0권 3호 (2007), pp. 129~155.
-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12호 (2013), pp. 738~747.
- 이승신. “베이비붐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2호 (2013), pp. 73~95.
-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1호 (2009), pp. 205~224.
- 이지은.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진석. “제5장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통일전략』 제14권 4호 (2014), pp. 131~157.
- 임장순. “도시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장용석 외.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권 5호 (2012), pp. 289~322.
- 정경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56권 0호 (2009).
- 정은찬.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문제점과 개선방안.” 『KDI북한경제리뷰』 3월호 (2016), pp. 53~61.

- 최혜지·이영분.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2005), pp. 415~435.
- 하춘광.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4권 4호 (2006), pp. 201~224.
- 홍성희·곽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2006), pp. 193~207.
-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Atkinson, A., and Messy, F. A. “Financial Education for Migrants and their Familie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vol. 38, no. 1 (2015).
- Borjas, G., Bronars, S. and Trejo, S. “Assimilation and the earnings of young internal migrants.” *Contract number J. 9-J-7-0093.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0).
- Ferraro K, F. “Cohort 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1974-1981.”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5, no. 1. (1990). pp. 21~31.
- Haverman, R., K. Holden, B. Wolfe and Shane Sherlund.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vol. 44, no. 2 (2006). pp. 249~264.
- Hodges, Linda.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2004.
- Johnson, P. J. “Changes in financial practices: Southeast Asian refuge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7, no. 3 (1989). pp. 241~252.
- Kim, J., Ingersoll-Dayton, B., and Kawk, M. “Balancing eldercare and employment: The role of work interruptions and supportive employ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2, no. 3 (2013). pp. 347~369
- Kim, J. and Moen, Ph. “Moving into retirement: preparation and transitions in late midlife,” in M. Lachman, 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2001.
- Long, J. “Continuity as a basis for change: Leisure and male retirement.” *Leisure*

- Studies*, vol. 6 (1987), pp. 55~70.
- Lusardi, A., and Mitchell, O. S.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17078* (2011).
-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the demand for wealth and the supply of capital." *Social Research*, vol. 33 (1966), pp. 160~217.
- Moore, J. F., and O. S. Mitchell. "Projected Retirement Wealth and Saving Adequacy," in O.S.Mitchell, B., Hanmmnd, and A. Rappaport, ed.,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Pension Research Council.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p. 68~94.
- Shultz, K., and Wang, M. "The influence of specific physical health conditions on retirement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65 (2007), pp. 149~161.
- Taylor, M., and Geldhauser, H. "Low income older workers," in K. Shultz & G. Adams, ed., *Aging and work in the 21st century*. Mahwah, NJ: Erlbaum. 2007, pp. 25~51.
- Topa, G., Moriano, J. A., and Moreno, A.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immigrants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33, no. 3 (2012), pp. 527~537.
- Trewin, Janet, and Anthony P. Curatola. "The Inequality of Distributions from Retirement Plans as a Result of Differing Life Expectations." *Benefits Quarterly First Quarter*. (2002), pp. 38~47.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착한(着韓)통계' 시리즈 IV 고령화. 2014년 11월.
- 통일부 홈페이지 2018년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통일부 홈페이지 2019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tatus>>
- "탈북민 3만 명 시대' 편견·차별 해소부터." 『KBS NEWS』 (온라인). 2016년 11월 8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4483&ref=A>>
- "한성무역 160억원 투자 피해 탈북민들의 애끓는 호소."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 2015년 1월 28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7793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 65세 이상 인구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 차지」. 2017년 9월.

“North Korean Defectors Learn Capitalism the Hard Way.” 『Wall Street Journal』 March 28, 2017; <<https://www.wsj.com/articles/in-south-korea-defectors-learn-capitalism-the-hard-way-1490734801>>

A Case Study on the Detering Experiences of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for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Kim, Hyo Ju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eung kun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deterring experience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To achieve this, we collected data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6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sed the data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less awareness of the concept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negative perception about financial methods to prepare for old age. Also,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ffered from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Second, North Korean defectors made additional expenditures which hinders savings for old age. It includes broker costs, remittances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excessive medical and medicine costs, and excessive spending on their children. Third, South Korea's environmental factors were also found. It contains maladjustment to capitalist society,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due to various discrimination, short working period, low living standards,

and fear of deprivation of benefit entitlement. Fourth, personal factors of defectors were also found.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igh expectations for jobs,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caused by experience of living in North Korea and escaping the country.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policy and practice guidelines to promote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deterring experience, case study

김효주(Kim, Hyo Ju)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소속이다. 주요 저작은 “U.S. Policy and Implementation Regarding North Korean Refugees: Foc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2010), 김정근·김효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2018), 이철수·한경훈·김효주·김승혜. “북한 장애인법제와 장애인연금”(2018) 등이 있다.

김정근(Kim, Jeung kun)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Social Welfare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강남대학교 용복합대학 실버산업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작은 “시간빈곤과 사회복지지출이 일하는 노인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간빈곤모형 (LIMP) 과 위계선형모형 (HLM) 을 중심으로”(2018), Kim, J., & Kang, S. “Work longer, better satisfactio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among Korean baby-boomers and older workers”(2018), Kim, J. & Klassen, T. “Mandatory Retirement in Korea: An Overview of the Past and Present”(2015) 등이 있다.